

한국 로펌 선호도 조사

‘한국 대표로펌’ 김앤장 기업체 변호사들 가장 선호

전문성, 업무수행 만족도, 인적 구성 등에 압도적 호감
울촌,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지평지성도 인기 높아



이른바 기업법무를 주로 취급하는 로펌들에게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내변호사들의 의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기업체 변호사들은 외부의 로펌을 선임해 사안을 매듭짓기 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며 여러 로펌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로펌의 숨은 평가자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직접 외부의 로펌을 선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겠지만, 많은 기업에서 회사의 법률업무를 수행할 외부의 로펌을 선정하는 일은 기업체 사내변호사들의 몫이다.

외부 로펌 선정은 사내변호사 몫

리걸타임즈는 주요 로펌별 경쟁력 평가에 앞서 기업체 변호사들을 상대로 로펌별 선호도를 조사했다.

또 브랜드 인지도와 기업체 변호사들이 직접 로펌에서 로펌변호사로 일하게 된다면, 어느 로펌에서 근무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벌였다. 기업체 변호사들 중엔 로펌 출신이 적지 않으며, 기업체에 근무하다가 로펌으로 직장을 옮기는 변호사들도 꽤 있어 이들의 평가 만큼 정확한 평가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변호사들은 특히 주요 로펌에 대한 선호이유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재해 설문조사 담당자가 놀랄 정도였다. 조사결과를 상세히 전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로펌 중 기업체 변호사들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조사됐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지평지성, 충정, 바른, 로고스, 양현의 순서로 기업체 변호사들에게 호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무법인 한울, 서정, 소명, 에버그린, 정평, 민주, 한결, 한누리, 남산, 다래, 서면, I&S법률사무소, 법무법인 APEX, 영진, 법률사무소 TY&Partners

◇ 가장 호감이 가는 한국 로펌

순위	로펌
1	김앤장
2	율촌
3	광장
4	태평양
5	세종
6	화우
7	지평지성
8	충정
9	바른
10	로고스
10	양현

“기업체 변호사 중에 로펌 출신 적지 않아 기업체에서 로펌으로 옮긴 변호사도 꽤 돼”

등이 호감이 가는 로펌으로 기업체 변호사들의 선택을 받았다.

에버그린, 한누리, I&S 등도 ‘호감’

기업체 변호사 35명이 ‘가장 호감이 가는 로펌’으로 선정,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김앤장은 전문성과 빈틈없는 서비스를 통한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 뛰어난 인적 구성 등이 호감을 느끼는 이유로 제시됐다. 10명의 변호사는 또 김앤장이 ‘두 번째로 호감이 가는 로펌’이라고 응답했으며, 13명은 ‘세 번째로 호감이 로펌’에 김앤장을 체크했다.

김앤장 다음으로 율촌, 광장, 태평양이 순서대로 높은 호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로펌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다.

율촌의 경우 깔끔하고 정확한 일처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등이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광장을 좋아하는 변호사들은 또 질 높은 서비스와 적절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이유로 들었다. 태

평양은 높은 전문성과 성실한 자세 등을 장점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았다.

세종도 높은 호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실한 답변과 서비스 마인드 등이 강점으로 꼽혔다.

화우, 빠른 회신 등 돋보여

화우는 대형 로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 의뢰인이 많은 로펌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덜 보수적인 의견, 빠른 회신과

“광장 질 높은 서비스, 합리적인 비용에 점수
태평양은 높은 전문성, 성실한 자세 돋보여”

합리적인 보수 등이 장점으로 제시됐다.

7위를 차지한 지평지성은 대형 로펌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용이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변호사는 ‘법률서비스와 사후 관리에 성의를 다한다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변호사는 ‘사건에 임하는 자세가 충실하고, 진행상황 전달 등 의뢰인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우수하다’

◇ 로펌의 브랜드 인지도

순위	로펌
1	김앤장
2	태평양
3	광장
4	세종
5	울촌
6	화우
7	지평지성
8	중성
9	바른
10	로고스

고 평가했다. ‘지평지성이 도전적이고 클라이언트에게 충실하다’는 의견을 보내 온 변호사도 있고, 또 다른 변호사는 ‘이미지가 스마트하다’고 지평지성을 평가했다.

합병로펌 지평지성 선호 높아

지평지성은 2008년 5월 당시 법무법인 지평과 지성이 합병을 선언, 그 해 9월 규모 7위의 로펌으로 급부상한 합병로펌이다. 특히 합병 선언 때부터 전문성과 수익성은 물론 윤리성, 공익성, 민주성을 철저히 견지하며 바람직한 ‘법률 전문가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주목을 받고 있다.

변호사 중엔 지평지성을 선호하는 이유로 ‘성실과 양심’

이라고 답한 사람도 있었다.

충정은 충실한 서비스와 적절한 수임료, 규모에 대비해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바른도 서비스 마인드와 전문성이 우수하다는 의견이며, 로고스는 변호사들의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 변호사는 ‘일반 회사의 업무시간에 맞춰 오전 9시에 업무를 시작하는 시스템이 좋아 보인다’고 로고스를 칭찬하기도 했다.

양현은 의뢰인에 대한 진실성과 적극성이 돋보이고, 상업주의적 성격이 타 로펌에 비해 약하다는 점이 선호이유로 제시됐다.

기업체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싶은 로펌에 대한 조사도 로펌 선호도 결과와 비슷하게 응답이 나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이 엇비슷하게 선택을 받았으며, 4위는 울촌이 차지했다. 또 세종과 지평지성, 화우를 근무하고 싶은 로펌으로 꼽는 변호사들이 많았다.

중견 로펌 중에선 법무법인 에버그린과 리 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등이 기업체 변호사들이 근무를 희망하는 로펌으로 선택돼 주목을 끌었다.

에버그린은 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박용석, 송현웅, 이경돈 변호사 등이 주축을 이뤄 발전하고 있는 중견 로펌이다. 회사법과 기업회생, 부동산 거래 등의 분야가 강하며, 에버그린에 호감을 느낀다는 한 변호사는 전문성과 함께 높은 월급 수준과 가족적인 분위기 등이 마음에 든다고 답했다.

리 인터내셔널은 특허와 함께 기업자문, 송무 등이 발달한 로펌으로, 최정수 전 성남지원장과 최영익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다.

전문성 개발, 근무환경 중시

기업체 변호사들은 전체적으로 로펌을 지원할 때 전문성 개발과 근무환경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을 선택한 변호사들의 경우 전문성 개발과 경력관리, 연봉, 중요 딜 참여기회 등이 엇비슷하게 김앤장을 지원하는 요인으로 조사됐다.

또 광장과 태평양, 율촌, 지평지성은 전문성 개발과 근무환경을 지원이유로 든 변호사들이 많았다. 세종도 근무환경이 근무를 지원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화우는 경력관리가 상대적으

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위권에선 태평양, 광장 유명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선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화우, 지평지성, 충정, 바른, 로고스의 순

“기업체 변호사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로펌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지평지성순”

서로 기업체 변호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이 ‘한국 대표로펌’ 처럼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2위권에선 태평양과 광장이 보다 많이 알려진 가운데 세종, 율촌, 화우 등과 함께 각축을 벌이는 양상이다.

또 한, 두 로펌 예외가 있지만,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한 로펌의 규모가 선호도나 근무하고 싶은 로펌, 브랜드 인지도 등의 조사결과와 대체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로펌에 대한 평가에서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LT]

한국의 로펌, 로펌변호사에 관한 최신 가이드북

단행본 <한국의 로펌> 나왔다!

50년 역사와 발전과정,
김&장 등 28개 로펌의 업무분야와 성장과정 본격 소개

**한국 로펌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전국 주요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구입문의는 02-3476-2015

